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4. 10. 14.(월) 06:00 < 10.14.(월) 석간 > 배포 2024. 10. 11.(금)

설계·조달·시공(EPC) 기업과 함께 플랜트 산업 발전 방향 모색

- 플랜트 수주 활성화를 위해 EPC 업계와 정부 한자리에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는 2024년 해외 플랜트 수주 330억 불 목표를 달성하고 EPC(Engineering, Procurement, Construction) 업계 차원의 미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플랜트 업계와 머리를 맞댔다.

오늘 개최된 「제2차 플랜트 EPC 정책 포럼」에서는 업계의 관심 사항인 ▲청정수소 발전 제도(CHPS), ▲금융 지원 방안, ▲시장 생태계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등에 관한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다.

첫 번째 발표(전력거래소)에서는 미래 먹거리인 수소플랜트와 관련하여 올해 개설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제도를 소개하고 생산에서 활용까지 각 밸류 체인에 맞추어 해외 프로젝트 개발, 암모니아 추진선 수주, 하역 및 저장 인프라 구축, 국내 수소발전소 건설 등 단계별 사업 기회를 제시하였다.

이어 두 번째로는 국내 수출신용기관(ECA, Export Credit Agency)이 「국가개발 프로젝트 특별지원」(한국무역보험공사), 「초대형 수주지원 특별프로그램」(한국수출입은행) 등 각 기관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 제도를 소개하였고, EPC 업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.

마지막 발표를 맡은 임병구 소장(플럭스 전략연구소)은 우리나라 플랜트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기존의 EPC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기본설계(FEED, Front End Engineering Design) 단계부터 그간의 EPC 수주 성과를 바탕으로 한 협상력(Bargaining Power)을 활용하여 적극 참여할 것을 주문하였다.

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“해외 플랜트 수주는 수출 회복의 핵심 수단 중 하나로서, 정부는 올해 플랜트 수주 목표 330억 불 달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”이라면서 “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Global South와의 협력 강화가 플랜트 분야에서도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통상협력국 통상협력총괄과	책임자	과 장	정근용 (044-203-5680)
		담당자	서기관	송기환 (044-203-5684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「제2차 플랜트 EPC 정책 포럼」 개요

1. 행사 개요

○ **(일시/장소)** '24.10.14.(월) 10:30~13:00 / 마포 엠갤러리 나루볼룸(2층)

○ **(참석대상)** 정부, 유관기관, 민간기업 등 EPC 관계자 100여 명

- (정부)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
- (기관) 수은, 무보, KOTRA, KIND, 전력거래소,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등
- (민간기업) DL이앤씨, GS건설, SK에코엔지니어링, 대우건설, 두산에너빌리티, 삼성물산, 삼성E&A, 포스코이앤씨, 현대건설, 현대ENG, 효성중공업 등

○ **(주최/주관)** 주최 산업통상자원부, 주관 한국플랜트산업협회

2. 세부 추진계획

시간	구분	내용	비고
10:30~10:50	개회식	■ 개회사	김창학 플랜트산업협회 회장
		■ 축 사	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
10:50~10:55	포토세션	■ 사진촬영	
10:55~11:15	발표1	■ 청정 수소 발전(CHPS) 제도 도입 현황 및 향후 계획	전력거래소
11:15~11:35	발표2	■ 플랜트 금융 지원 방안	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
11:35~11:55	발표3	■ 플랜트 시장 생태계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	플럭스전략연구소
11:55~13:00	오찬	■ 네트워킹 오찬	